

청운교회

2018 04 28



평신도 후기

CRC 교단에서 성경 전체를 효과적으로 듣도록 현장 장면을 보는듯 .. 관심을 갖게 하신 여러분들의 참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도록 애써주심이 귀한 사역으로 계속 전파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지 않고 듣기만 했을 때 오히려 전체흐름과 전에 그런 구절이 있었던가.. 다시 보면서 계속 듣기만 하는 시도를 경험했습니다.

성우 여러분의 각자 역할에 맞는 음성이 잘 어울리고 참 잘하신다.. 했고...특히 예수님의 음성이 잘 어울리니 실제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중요한 말씀을 귀 기울이며 들으려는데 효과를 내는 음악소리. 비바람소리..문 열고 닫고..이런 것이 방해가 되어 말을 놓치니 마음이 불안정되었습니다...

녹음소리가 아주 크면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최대 크게 틀어도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충애 성도

신약통독만 마치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신, 구약을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소신껏 저의 느낀 점을 피력할 뿐임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우들의 목소리에 개인의 감정(스킬)이 너무 이입되었고, 필요이상의 효과음(예 : 물 따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군중들의 고함소리 등등)으로 인한 분주함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올인하여 은혜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순순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설교자의 말씀보다 유익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듣기에 아름다운 보이스보다는 조금 투박한 사투리가 섞여도 성령충만하여 믿음이 함축된 성경낭독이 된다면 듣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경미 성도

드라마 바이블 처음 접하면서 떠오른 느낌과 생각은 과거 성경통독의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할 수 있었다. 성경통독의 단조로움을 깨고 효과음들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훨씬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성경통독의 목적으로 볼 때 드라마바이블이 훨씬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물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배경음향, 성우들의 목소리가 청취자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후에 기술적으로 배경음향을 조절, 성우를 선택할 수 있는 버전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드라마바이블이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고 본다. 매우 잘 만들어졌으며 제작하는 과정에 수고와 애씀이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유익을 주는 훌륭한 도전에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창환 성도

목회자 후기

CRC 한인사역부의 이런 시도는 참신하고 좋았다.

더욱이 이런 시도가 성경을 읽는 것 외에도 목사들의 설교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는 의도가 목사들을 생각하는 교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긍정적이었다.

신약을 읽는 3-4 달 동안 나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매일매일 준비해야 하는 설교에서 해방되는 편안함을 맛보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니 내가 많이 말씀에 게을러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준비 없이 단에 서서 녹음을 틀어주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은 새벽기도회가 없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며 하는지라 목요일이 되어 내가 다시 단에 설 때는 어디를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당황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이런 현상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교역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았다.

성우들의 기름진 목소리와 대화식의 녹음,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 효과음 등이 실감을 주어 좋았다. 다만 어떤 곳은 성우들의 말소리가 효과음보다 적어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흠이랄까?

말씀을 들으며 같이 따라 읽으면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피곤하여 눈을 감고 들을 때가 많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 생각이 다른 곳에 미치면 집중하는데 힘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이 다 은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을 때는 새롭게 깨닫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이명수 목사